

강진군, 맛집 육성에 팔 걷어붙여

강진맛집 육성 컨설팅 시식회 및 보고회 가져

강진군이 지난달 26일 군수를 비롯한 컨설팅 참여 음식점 대표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전 우아민물나라에서 '제2기 강진맛집 육성사업 컨설팅 시식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제2기 강진맛집 육성 컨설팅에는 맛, 친절, 위생상태 등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관내 7개 음식점이 참여했고, 이날 보고회는 지난 3개 월에 걸쳐 컨설팅을 받은 결과물인 맛과 상차림에 대한 시식 및 전시자리로 마련되었다.

컨설팅에 참가한 7개 음식점인 강진읍의 모란추어탕(꽃비빔밥), 토담추어탕(추어탕), 군동면의 정가네식당(주물럭쌈밥), 칠량면의 대지식당(장어탕), 마령면의 멋진 만남(단호박수제비), 성전면의 우아민물나라(메기탕), 병영면의 서

가네식당(연탄돼지불고기)은 상차림 전시 및 시식코너를 마련하고 시식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승옥 군수는 비롯한 참석자들은 나아진 음식의 차림새와 좋은 반응을 보이며 강진은 이제 한정식, 회춘탕 뿐만 아니라 단품요리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면서 강진 맛집으로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 하였다.

우아민물나라 김영운 사장은 '컨설팅 이전엔 단순하게 메기탕 만 손님상에 내었는데 메기탕에 민물새우를 올려보면 어떻겠냐는 컨설팅을 받은 후 그대로 했더니 많은 손님들이 좋아하신다'며 '컨설팅을 계기로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시식회에서 제2기 강진맛집 컨설팅 용역업체인 (사)한국맛



음식연구원 이선희 원장은 '음식은 마음이고 사랑이어야 한다'며 컨설팅 중 우수 영업주로 선정된 멋진만남 이종민 대표, 모란추어탕 김미순 대표 등 2명에게(사)한국맛음식연구원의 민간자격인 메뉴개발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승옥 군수는 종평에서 '강진에 가면 한정식만 아니라 단품 요리

도 있다.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강진 음식점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서 모든 음식점이 강진맛집, 대한민국 대표 맛집이 되어 강진관광을 이끄는 선도적인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성 노란꽃잔치' SNS 이벤트 진행

'2019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막일인 1일부터 20일까지, 장성군이 3차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노란꽃잔치 현장을 방문해 황룡강 10여 송이 꽃길에서 인증샷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린 다음, 장성군 공식 SNS를 팔로우 해 댓글에 인증샷 링크를 적으면 된다. 장성군은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40명에게 BHC 치킨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 결과는 11월 7일 장성군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3차 SNS 이벤트와 함께 축제현장에서 직접 캄캄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노란 옷을 입은 행운의 요정들이 축제 현장 곳곳에 출몰해 'SNS 미션'을 제시하는데, 이를 수행하면

풍성한 행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면 3차 SNS 이벤트의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한편, 장성군은 노란꽃잔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다양한 SNS 이벤트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지난 28일에는 SNS 서포터즈 간담회를 개최해 축제홍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3차 SNS 이벤트와 현장 이벤트 그리고 서포터즈의 활약을 통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대되어, 이를 여행객들의 많은 방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박종영 기자

목포시, 2019년 모범 음식점 신청 접수

목포시는 위생관리와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1일부터 12월까지 2019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희망 업소는 목포시 보건위생과(270-8913),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282-8184)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범업소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또한 지난해 지정된 모범음식점 99개소에 대해서도 재심사한다.

특히, 2차 현지조사는 ▲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및 친절도 ▲ 떨어뜨리기 용기사용 여부 ▲ 좋은 식단제 실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이 수여되고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무안군, 농어촌개발사업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무안군은 최근 해제면 다목적 센터 세미나실에서 중앙정부의 군통회계 지방이양을 앞두고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무안군 농어촌개발사업 관련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최원일 지사를 비롯한 실무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개발사업 운영에 대한 강의와 열띤 토론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은화 아니운서의 공감스피치, 올해 행복마을콘테스트 대통령상을 받은 거창군 빙기실 마을 박주영 사무장의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 강의, 지방이양사업 추진 방향 질의 토론 등이 진행돼 변화된 정책을 이해하고 신규사업

에 대한 추진방향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이양사업의 흐름에 대비하여 농어촌분야의 담당 공무원과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마술로 배우는 눈높이 인구교육' 실시



진도군이 최근 진도초등학교 15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라남도, 진도군, 동아보건대 미술학과와 협력해 열렸으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질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참여마술·카드마술·인구문제 퀴즈 등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인구문제라는 어려운 주제를 참여마술,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해가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이번 교육이 가치관 정립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간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완도군은 지난달 26일부터 1박 2일 동안 신지 해조류스파랜드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선 7기 들어 첫 '간부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각 부서 및 읍·면의 행정 공백을 고려하여 지난달 19일부터 추진한 1기에 이어 2기에는 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화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조직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에서는 군민들과 학생, 공공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다.

특히 29일 차에는 완도군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르딕워킹과 해수찜질 등 해양기후치유 체험과 해초 및 꽃 등을 이용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차를 시음하는 시간을 편성해 첨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의 우리군 미래 비전과 군정 핵심과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희망찬 미래 완도 발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고 밝혔다. 며 '해양치유산업 원년의 해로 선포된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